금주의 법구-〈잡아함경〉
원한을 오래 품지 말고
성내는 마음에 머물지 말라.
화가 치밀어도 욕하지 말라.

현대불교

행복 더하는
현대불교 ARS 후원
060-700-1080

1994년 10월 15일 창간 주1회 발행 제1187호 구독신청 (02)2004-8212 hyunbulnews.com (불기 2562년 · 단기 4351년 음력 1월 20일) 2018년 3월 7일 수요일

훈풍 맞은 남북관계 불자지성 교류 확대

교불련 창립 30주년 맞아 北조불련 연대 밝혀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불자지성인들의 결집체인 한국교수불자연합회가 창립 30돌을 맞아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적극적인 발걸음을 딛는다.

한국교수불자연합회(회장 심익섭, 이하 교불련)는 2월 27일 서울 대원정사에서 '한국교수불자연합회 창립 30주년 기념법회'를 개최했다.

이날 교불련 측은 "북한의 조선불교도연맹 전국신도회 명의 축하전문이 도착했다. 30주년을 기념해 교수불자회와 북한 조선불교도연맹 전국신도회 간 협력과 연대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교불련 측은 매년 열리는 '한국교수불자대회'를 창립 30주년 기념 '남북교수불자대회'로 북한에서 개최하며 이를 위해 교불련 교수들이 북한을 사전 방문함과 동시에 북측 사찰순례와 불교문화재 공동연구 등을 지속사업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이번 교불련의 30주년 기념사업 연대는 2017년 남북평화교류 사업을 준비해 온 교불련이 조불련에 2월 7일과 13일 제안 서한을 보낸데 이어 조불련 측이 평창올림픽 기간인 2월 23일 차금철 서기장의 명의로 '교수불자회-조불련 관계 활성화' 답신을 보내면서 시작됐다.

차금철 조불련 서기장은 "겨울철 올림픽 경기대회를 계기로 북과 남 사이에 관계 개선의 분위기가 전례없이 높아지고 있다. 귀 연합회와 우리와의 연대활동을 기쁘게 생각한다"며 "북과 남의 불자들, 지성인들이 힘을 합치면 민족 화해와 평화와 통일에 많은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27일에는 재차 축하서한을 보내 "창립 30돌을 맞아 새 출발에 나서는 남측 교수불자회와 북측 전국신도회 사이의 긴밀한 연대는 민족 화해를 위한 중심적 역할을 할 것으로 확신한다"며 교류협력에 적극 나설 것임을 밝혔다.

이에 대해 심익섭 회장은 "10년간 단절된 남북관계가 평창 올림픽을 계기로 물꼬를 텄다면 교수불자연합회가 불교교류를 중심으로 남북평화를 이어갈 것"이라며 "종단을 불문한 교수불자연합회의 장점을 살려 우선적으로 불교학술교류 및 불교문화재 조사 등을 중심으로 합의를 이끌겠다"고 말했다.

심 회장은 이어 "그동안 교불련은 각종 학술대회와 학회지 발간 등 교불련만이 할 수 있는 실천을 해왔다. 하지만 30년이 넘어 전환기적 고뇌 끝에 지식인의 결집체로서 국가와 사회를 위해 기여해야 한다는 의식하에 이 같은 결정을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30주년 회고사를 발표한 류종민 중앙대 명예교수(전임회장)는 "교불련은 창립 10주년인 1998년 국난극복을 위한 불교와 자비실천 학술대회, 2008년 세계종교와의 대화, 기독교계와 공동대회 등 교수들의 신행모임을 넘어 불교의 영역을 확장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며 "최근 대학생 불교동아리 후원, 불교미래포럼 등의 노력을 더욱 배가하고 시대 과제를 반영해 역동성을 지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교수불자연합회는 한국사회 민주화에 대한 범사회적 동참이 요구되던 1988년, 다양한 전공의 교수들이 모여 창립했으며 현재 전국 250여 대학 2000여 교수들이 활동하고 있다. 특히 2016년 불교미래포럼을 조직해 불자 지성인 네트워크에 앞장서고 있다.

현재 조계종 총무원장 설정 스님과 포교원장 지홍 스님, 태고종 총무원장 편백운 스님 등 각 종단 대표들이 고문으로 있다.

교수불자연합회 30년 연표

1988년	창립총회(대원정사)
1990년	제1회 한일불교학술회의
1997년	독일 한국불교문화예술제
2000년	중국 선종학술대회
2002년	한국교수불자대회
2004년	제1회 세계교수불자대회
2006년	제1회 불교 · 기독교 교수 학술회의
2011년	대학생불교동아리 지원
2016년	불교미래포럼 창립
2018년	남북 공동학술대회 추진

올해 교수불자대회 북한 개최 추진
북한사찰 순례 및 문화재 조사도
교불련 서한에 2차례 조불련 화답
조불련 측 "민족 중심 역할할 것"



'대한독립만세! 만세…' 대한의 자주독립을 위해 분연히 일어났던 3 · 1운동이 99주년을 맞았다. 부산불교연합신도회가 이를 기념하기 위해 범어사 상마 마을에 위치한 3 · 1운동 유공비 앞에서 기념식을 봉행하고 만세운동을 재현했다. 1919년 3 · 1운동 당시 범어사 내 불교학교의 학생 41명이 전개한 만세운동을 기리기 위해서다. 교직원, 학생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헌공다례는 정진완 교장을 비롯해 교직원 대표, 학생 대표 순으로 헌향, 헌다가 진행됐다. 사진=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3월의 크리스마스 → 스노우 페스티벌

논란된 패럴림픽 한류축제
불교계 반대로 명칭 수정

본지 인터넷 보도 이후 반향
불교계, 주최 측에 항의방문
공공기관 종교중립 유지 당부
道 사과 "오해 없도록 하겠다"



강원도와 한국관광공사가 당초 발표한 '3월의 크리스마스' 홍보문구(왼쪽). 불교계 항의 이후 '3월의 스노우 페스티벌'로 수정됐다.

강원도와 한국관광공사가 패럴림픽 기간에 개최하는 한류축제 명칭을 '3월의 크리스마스'에서 '스노우 페스티벌'로 정정했다. 이는 본지 인터넷 보도(2월 23일자) '패럴림픽서 왜 예수탄생 축하를?' 이후 조계종이 양측에 항의방문하며 이뤄진 결과다.

현재 페스티벌 홈페이지 주소는 '크리스마스 인 마치(christmasinmarch.com)'에서 '스노우 인 마치(snowinmarch.com)'로 변경됐으며, 행사 공식명칭도 '3월의 스노우 페스티벌'로 수정됐다. 조계종과 월정사의 항의방문에서 주최 측은 이미 홍보가 끝나 공식명칭 변경에 난색을 표했으나 종교인권 감수성이 부족한 점을 사과하고, 명칭을 변경했다. 특히 향후 제작될 현수막에도 스노우 페스티벌이 사용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강원도청 관계자는 "기존에 배포된 홍보자료는 어쩔 수 없지만 공동주최하는 관광공사와 논의를 통해 행사 명칭을 수정했다. 행사 기획단계에서 크리스마스가 눈과 축제를 연상시킨다는 해외관광업계 의견을 받아들여 발생한 일이었다"며 "결코 특정종교 입장을 담은 것은 아니다. 올림픽보다 비교적 관심이 낮은 패럴림픽에 외국인 관광객 유치하려고 했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관계자는 이어 "강원도 문화 상품화에서도 사찰과 템플스테이는 빠지지 않을 정도로 중요하다. 불교계를 등한시할 이유가 전혀 없다"면서 "축제에 참여하는 한류스타 이동욱 · 장근석 씨가 재능기부를 해주셨다. 더 이상 행사에 대한 오해 없이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불교계 홍보도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주최 측의 사과와 발 빠른 대처에 불교계도 불필요한 오해를 없애고, 행사가 본 취지에 맞게 개최되길 기원했다.

월정사 측은 "공식명칭 변경이 어렵다고 했을 때 패럴림픽조직위원회(IPC)에 의견을 물어야 할지까지 고민했다"면서 "다행히 원만하게 문제가 해결됐다. 3월의 스노우 페스티벌이 성황리에 진행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이에 앞서 강원도와 한국관광공사는 2월 22일 기자회견을 열고, 관광객들이 패럴림픽을 관람하면서 한류문화를 즐길 수 있도록 '3월의 크리스마스 페스티벌'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강원불교계는 크게 반발했고, 조계종 사회부와 평창 월정사는 2월 26일 강원도청과 한국관광공사를 방문해 명칭 시정을 촉구했다. 윤호섭 기자

정유년 동안거 해제 운수납자 만행 나서

조계종 94개 선원서 2000여 수좌들 정진

불기2561년 정유년 결제에 들어간 동안거 해제가 3월 2일 전국 조계종 100여 선원서 일제히 봉행됐다.

조계종 전국선원수좌회가 전국 선원 정진 대중현황을 정리한 '정유년 동안거 선사 방함록'에 따르면 이번 안거에는 전국 94개 선원(총림8 · 비구선원57 · 비구니선원29)서 총 2,032명(총림286 · 비구1,108 · 비구니638)의 대중이 용맹 정진한 것으로 집계됐다.

조계종 종정 진제 스님은 동안거 해제를 맞아 "파도에 백번 밀려나도 다시 바다를 향해 나아가는 돛단배가 마침내 순풍을 만나 신대륙에 도착하듯이, 수행자는 번뇌망상이 팥죽 끓듯이 일어날 때마다 화두를 챙기고 의심하는 백절불굴의 의지를 가져야 화두가 순일해지고 마침내 마음의 고향에 이르게 될 것"이라고 법어를 내렸다.

스님은 이어 "화두를 챙길 때는 아주 또렷하게 화두의 의심을 지어가야만 가지가지의 생각이 침범하지 못하고 혼침(昏沈)도 달아나 버린다. 만약 털끝만큼이라도 다른 생각이 있거나 게으른 생각이 있으면 화두는 벌써 십만 팔 천리 밖으로 달아나 버리고 과거의 습기(習氣)로 인한 다른 생각이 마음 가운데 자리 잡고서 주인노릇을 하고 있게 된다"며 "견성하고 말겠다는 확고한 대신심(大信心)과 불타는 대용맹심(大勇猛心)을 내어, 번뇌와 망상이 들어올 틈이 없도록 혼신의 노력을 쏟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종정 · 방장 동안거 해제법어 A6〉

윤호섭 기자

1187호 INDEX

시방세계 A5
나우회 재현전 준비 日답사 현장



기획연재 A7
4차산업과 불교-암호 화폐

기획연재 A9
사찰경영산문에 들다

연등시공전문기업 대광불교
연등자동승강장치 최초개발시공업체

연화등 공단등 만월등



연등 자동 승강장치



연등시공



대광불교
항상 등불을 밝히는 마음가짐으로 등 제작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매자리길 113
010-9446-1862 | 010-2788-7270
031)768-7270 | 031)768-7271
e-mail : hskhsg@naver.com